

“100년전의 뜻 새기며 내일로 힘차게 전진” | 김종기 전주 YMCA 이사장

“전주 YMCA 100주년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다가오는 100년을 여는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통일 운동을 위한 약속입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전주 YMCA. 그 중심에서 묵묵히 숨은 봉사자로 활동하는 김 이사장을 만났다.

아침 7시, 전주 중화산동의 유명마트 문을 열고 김종기(68) 전주 YMCA 이사장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반 11시까지 이어지는 마트 운영, 그 틈틈이 시민사회 활동까지, 바쁜 일상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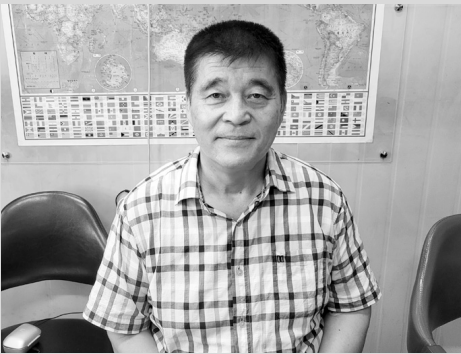
김 이사장으로부터 전주 YMCA 설립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1925년 전주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일제의 압제에서도 희망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문교회 성도들과 신흥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뜻을 모아 전주 YMCA를 세웠다. 식민지 백성의 의식을 깨우고 독립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때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농촌운동, 교육 운동, 독립운동까지... 1934년 일제가 강제로 해산시켰지만, 광복과 함께 다시 일어났다”는 김 이사장의 목소리에 100년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요즘 김 이사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주 YMCA 회관 1층에 조성 중인 ‘평화 카페’다.

1억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드는 큰 사업이다. 하지만 전주 YMCA는 정부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



“불행이라 요즘 모금이 쉽지 않다. 하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이면 반드시 된다.”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주고 있다. 회관 입구에는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긴 돌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원히 기억되는 감사의 표시다.

평화 카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2층부터 4층까지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특별하다.

그는 “우리 이사들은 앞에서 비전을 세우고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 현장의 간사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돕

는 거예요. 그게 전주 YMCA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마트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전주 YMCA 일에는 언제나 시간을 낸다.

김 이사장에게 마트 운영과 시민 운동을 동시에 하는 삶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시간을 내는 것이 때론 쉽지 않지만,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오는 9월 11일 창립기념일에는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평화 카페 준공식과 함께 진행되고, 10월 24일에는 전주 라한호텔에서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김종기 이사장은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민중의 눈을 깨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시작한 그 훌륭하신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누구나 존중받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다음 100년을 향한 전주 YMCA의 약속이다.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통일 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린 우리 선조들. 그 정신은 지금 김종기 이사장과 원로 선배와 30여 명의 이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지도자, 그리고 평회원들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꽃피우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대, 미화직원 초청 ‘감사의 식탁’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 미화직원 60여 명을 대학 식당으로 초청, ‘감사의 식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박진배 총장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며, 그간 묵묵히 대학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헌신해 온 미화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박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소중한 땀방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고교생 대상 이차전지 실습교육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재능나눔 고교연계 이차전지 이해증진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차전지의 원리와 제조, 성능평가에 대한 기초 이론을 비롯해 로봇 실습, 배터리팩 분해·조립, 3D 모델링 교육, VR 체험 등으로 구성, 참여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대학교 실습실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실습이 재미있었고, 진로를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관내 의료시설 안전컨설팅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5일, 도립 남원노인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입원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가 상주하는 의료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의료기관 화재사례 공유 △입원환자 화재대피 방안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김승현 서장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만큼 관계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피난훈련과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사고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 간담회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 24일 임실소방서 회의실에서 임실군청, 임실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고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사업’을 위한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율적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4년도 사고위험지역 발굴·개선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2025년도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 안내등을 중점 논의했다.

임실소방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각 기관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무더운 여름, 장애인이 건네는 시원한 생수에 ‘감동’

해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활동가들, 3년째 ‘마르지 않는 생수 나눔’ 이어가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여름날, 전주 호성동 거리 한복판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는 손길이 있다.

해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매년 여름이면 거리의 노점상과 무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수를 나눈다. 올해로 3년째, 이듬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 나눔’이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주중 오후 1시, 호성농협 사거리에는 매일 100병의 생수가 배달된다. 그것도 무료로,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되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는 코레일유통 호남본부(본부장 김유석)가 생수 2,000병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김 본부장은 “이 작은 물 한 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일 수 있다. 그 결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점상인들도 감동을 전했다. “무더위 속에 생수 한 모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건네주는 정성에 마음까지 시원해요.” 거리의 반응은 뜨겁고도 따뜻하다.

해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성원 대표는 “장애인들이



직접 나누며 기쁨을 배우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감동’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이 나눔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르지 않는 생수 나눔’은 오는 8월 말까지 주 5회 계속된다. 이들이 전하는 생수 한 병은, 단지 물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윤기이며,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사회의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만호 기자

무주지역 고교생들, 서울대·고려대·전북대 견학

진학 설계·학업 동기 구체화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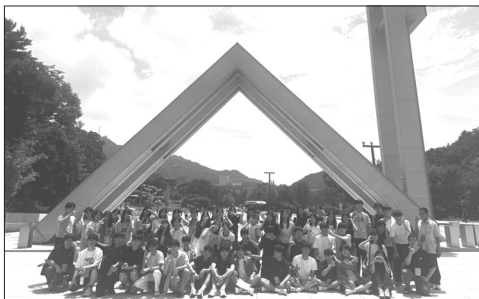
무주군 교육발전협의회(회장 김태석)가 올해도 지역 내 고등학생들의 우수대 학 견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08년부터 15년간 이어온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동기 부여와 성취에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 수립 및 점점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던 견학에는 무주고등학교와 설천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 56명이 참가했으며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를 차례로 견학했다.

학생들은 첫날 서울대학교 멘토링 교육에 참여했으며 졸업생으로부터 ‘궁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후 캠퍼스 투어의 시간도 가졌다.

두 번째 탐방대학인 고려대학교에서는 입학설명회를 들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입학 설명과 캠퍼스 견학을 통해 대학 생활을 간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뭘가 마음은 조금한테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대학을 둘러 보고 선배도 만나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있었다”라며 “대학이여 전공 등 그



동안 생각만 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꿈을 향해, 또 미래의 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우수대학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1천2백여 명의 무주군 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권 4개 대학과 전북대학교 등 주요 대학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어르신 찾아가는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관내 60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문화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순창군노인회를 통해 신청한 경로당 중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약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나만의 우산 만들기 △아로마파스 만들기 △타일받침 만들기 등 공예활동 3종과 △건강 체조 프로그램 1종으로 구성됐다. 각 경로당은 이 중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어르신들의 취향과 실생활 활용도를 고려한 구성으로 높은 참여율이 기대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장계농협·NH농협 장수군지부, 침수 농가 복구지원

지난 25일, 장계농협 (조합장 박점웅)과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 등 농협 임직원 15여명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복구 작업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외부 빗물이 토마토 하우스 내부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침수 피해로 하우스 안으로 쓸려 들어온 흙과 부유물·각종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훼손된 시설을 정돈하며 농업인의 빠른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땀을 흘려 일했다.

박점웅 조합장은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지역 농업인의 피해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수 지부장은 “민원직화한 동반자, 전북농협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가의 어려움에 함께하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곽관호 기자

김제시 부량면, 폭염대비 경로당 현장 점검 실시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관내 22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대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냉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주요시설 중점 점검을 비롯해, 경로당을 상시 개방, 폭염 취약계층이 폭염을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쿨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더불어 경로당 이용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사용안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자)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무주지사 010-2300-4253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